

“광주 농성지하차도 침수, 이젠 옛말”

도로 구조개선...경사도↓ 침수장 용량↑

기록적인 폭우에도 침수피해 없이 제 역할

상습 침수구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광주 서구 농성지하차도가 도로 구조개선 후 기록적인 폭우에도 끄떡없이 제 역할을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8일 이틀간 광주에 누적 강수량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광주지역 주요 도로 20% 이상이 침수됐으나 농성지하차도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농성지하차도는 적은 양의 강수량에도 상습 침수돼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등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지난 1988년 준공돼 총연장 215m, 종단경사 8도의 급경사로 배수까지 원활하지 않아 상습 침수도로로 악명을 떨쳤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017년 1월 농성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해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7월 말부터 개통했다.

총 사업비 118억원을 들여 지하차도를 기존 215m에서 300m로 연장하고 경사도도 8도에서 5도로



낮췄다.

특히 12t 규모인 지하차도 침수장의 용량을 370t 규모로 확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성지하차도의 경사도를 낮추고 침수장 용량을

늘려 웬만한 강수량도 견디게 했다”며 “이번 폭우에 저지대 도로 상당수가 침수돼 통행이 통제됐으나 농성지하차도는 정상 운영됐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동구, 마을공동체 온라인플랫폼 구축

광주 동구는 주민이 꿈꾸는 마을비전 수립을 위해 ‘2020 온라인 동구마을비전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마을비전수립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0 온라인 동구마을비전학교’는 주민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해가는 주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3개월간 진행되는 마을교육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이해 및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례를 온라인 교육콘텐츠로 제공하고, 이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마을자원조사 및 마을의제 수립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마을비전을 수립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서구, 비대면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 교육 진행

광주 서구는 오는 12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시스템 활용 역량강화 교육 ‘ZOOM? 나두 했어, 너두 할 수 있어’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센터장:이은주) 주관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해 위축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면 시스템의 기본 기능 교육과 온라인 마을교육 기획, 공동체 모임, 교육 운영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조인호 기자

남구, 베테랑 공무원 복잡민원 처리 돕는다

광주 남구는 11일 “정부에서 규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관 뉴딜사업’과 관련해 구청 각 부서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남구형 뉴딜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각 부서에서 발굴한 남구형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5개) ▲그린 뉴딜(9개) ▲안전망 강화(2개) 등 3대 분야 16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다음 달 초 ‘남구형 뉴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최종 사업을 확정된 뒤 남구형 뉴딜사업 종합 계획안 및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지역특화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소개하고 생생제품을 안내하는 ‘한 눈에 보는 사회적경제’ 영상을 제작해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판매장에서 홍보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향상을 도모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층을 확대하고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매칭데이 등 주요행사와 연계해 제품 판매장터인 ‘사회적경제 플라마켓’도 운영한다.

서선숙 기자

광산구, 얼음 용기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광주 광산구는 10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4개 전통시장 상인회, 평동 우리밀식품 등 4곳 식품제조업체와 구청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얼음 용기의 효율적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

최근 신선 식품 배달 주문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없이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얼음 용기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단체는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한국철도 전남본부, 역사 내 女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59개소 불법 촬영 방지

한국철도(코레일) 전남본부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순천역 등 주요 역(11개역) 여성용 여객화장실 59개소에 대해 안심스크린을 설치

했다고 밝혔다.

안심스크린은 여성화장실 내 출입문을 제외한 좌·우측 칸막이 하단부 이격 공간을 막는 별도 가림막으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설물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촬영 및 유포가 증대한 사회적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금번 역사 내 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에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호 한국철도 전남본부장은 “이번 안심스크린 설치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역과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촬영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 여자 화장실내 성범죄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전남도, ‘전남 사랑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

인구 감소세 지속...도내 18개 시군 소멸 위험 놓인 상황



전남도는 인구문제 관심 촉구와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사랑,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을 가졌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 감소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놓인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청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민과 함께 ‘전남에(愛) 살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 전남도청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직장이 있는 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유도하는 운동이다.

여름 더위를 겨냥해 제작한 카툰이 담긴 부채 홍보물과 사랑의 황금알(구운 계란)을 나눠주기 이벤트를 가졌으며, 내부 행정포털망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 전남사랑 실천을 유도하는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14일까지 전남도청 운전도출에서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입상 우수작품 30점을 선보이는 ‘출산장려 사진전’을 열어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역 사랑의 첫 걸음은 내 직장 주소 갖기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하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전남사랑, 주소 갖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내 직장 주소 갖기 일환으로 전남지역 기업체와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386회를 운영해 2214명이 주소를 이전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정환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추모관 침수피해 적극 지원” 주문

이용섭 광주시장의 침수 피해를 입은 추모관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1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추모관 침수는 있어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고 역장이 무너지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추모관 측은 모든 대응조치와 성의를 다하고 인들에 대한 예를 다하고 유족의 아픔을 해소해 드려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추모관이 침수되자 이 시장은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유족 지원에 나섰다.

조인호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인건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혜택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